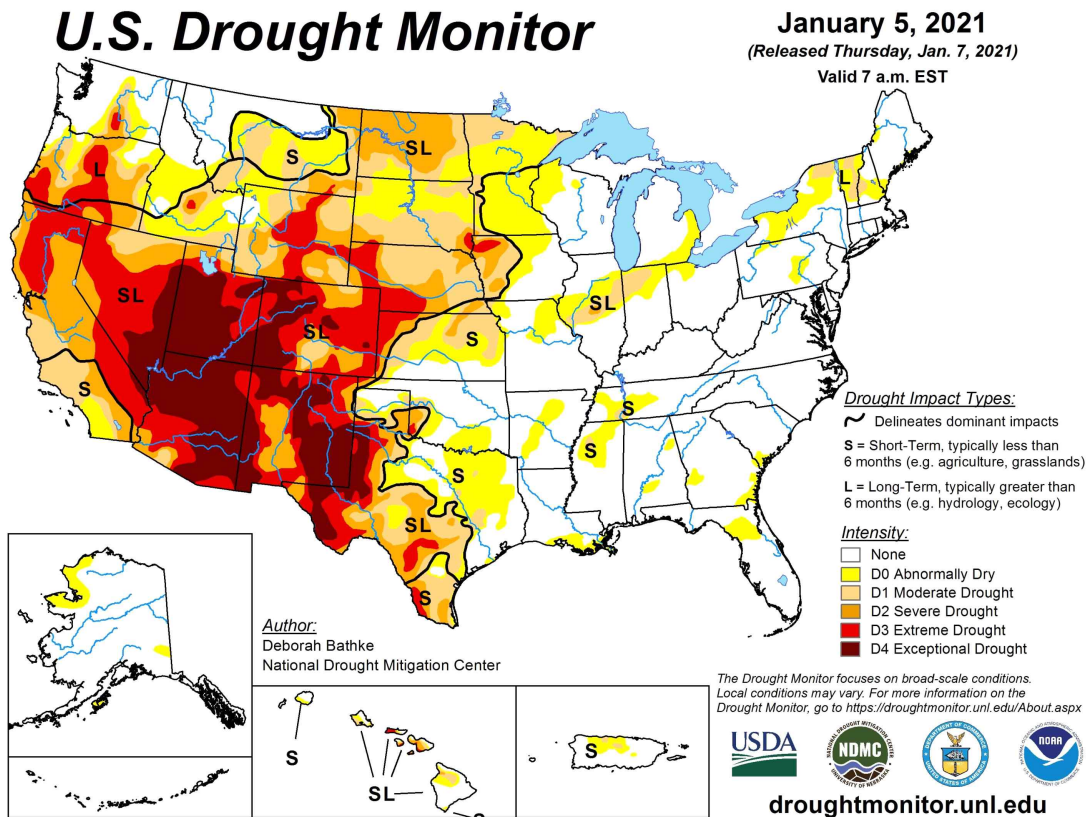


1월 12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8, No. 2)

□ 미국 기후 현황(1/3~1/9)

남서부, 평원, 중서부 및 북동부의 많은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의 많은 지역이 건조한 날씨를 경험했다. 그러나 주 늦게 로키 산맥과 평원의 남쪽 구역을 가로지르는 폭풍 전선으로 인해 눈이 약간 내렸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1월 10일에 내렸다. 동쪽으로 멀리 남부를 가로지르는 폭풍 전선 하나가 주로 1월 6일에 얼마의 비와 눈을 촉발시켰다. 하지만 그 폭풍은 그다지 잘 발달한 것이 아니어서 2인치를 넘었던 강우의 대부분이 아르클라텍스 지역에 한정되어 내렸다. 그밖에 연달아 일어난 태평양 폭풍들이 북서부를 휩쓸면서 캐스캐이즈에서부터 서쪽으로 광범위한 비와 눈을 몰고왔다. 강수가 고평원 북부처럼 내륙 깊숙이 그리고 북캘리포니아처럼 먼 남쪽까지 주기적으로 밀고 들어갔다. 북극의 공기가 다시 차단되어 미국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내 대부분에서 기온이 평년에 가깝거나 평년 이상이었다. 조건들이 평년보다 추운 포켓들은 대부분 로키산맥 중앙과 그 주변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평년 대비 가장 따뜻했던 날씨가 국내의 북부에 나란히 줄지어 있는 주들에 다시 영향을 미쳤다. 다코타 일부를 포함해서 몬타나 북부에서 슈피리어 호까지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0-20° F 높았다.



□ 농업 현황 요약 ()

: 내용없음

□ 세계 기후 현황(1/3~1/9)

■ 유럽: 계절을 벗어나게 따뜻하여 광범위한 비와 눈이 만연했던 동부 채배 지역과 대조적으로 대륙의 서쪽 절반은 날씨가 추웠다.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남서부 대부분에서는 가뭄거나 보통의 강수 (1~25 mm 액체 등량)가 보고되었다. 한편, 지중해 지역뿐만 아니라 동유럽 대부분에 걸쳐서 보통 내지 강한 비와 눈 (10~100 mm, 지역적으로 더 많이)이 보고되었다. 그런 습한 날씨가 동독, 서폴란드 및 북오스트리아에서 휴면기 (중부와 북부) 및 영양기 (남부) 중에 있는 겨울 곡류와 유지작물들에게 필요한 적당하거나 풍부한 수분 공급을 유지 해주었다. 계절에 맞지 않은 따뜻함 (평년보다 2~6° C 높은) 때문에 대륙의 동쪽 일부에 걸쳐서 작물 지역이 아무런 특징없이 눈덮임이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리스와 발칸반도 남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8° C 이상 높았다. 반대로, 서유럽은 최저 기온이 잠재적인 동사 임계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평년보다 더 추운 (평년보다 2~7° C 낮은) 상태가 계속되었다; 하지만 수치가 -10~-6° C로 떨어진 북스페인에서는 겨울 곡류가 마름 증상이 일어났을 수 있었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흠뻑 적시는 비와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면화, 수수 및 기타 여름 작물들에게 더욱 도움이 되었다. 그 비 (15~50 mm, 지역적으로 100 mm에 가까운)는 관개 요구량을 비교적 낮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건조지 작물들의 표토 수분량을 더욱 올려주었다. 동호주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4° C 낮았고 최고 기온은 대체로 높은 섭씨 20도대~낮은 30도대 사이에 있었다. 밀 벨트 내 다른 곳 중에서 서호주, 남호주 및 북빅토리아는 날씨가 대체로 건조하여 (대체로 5 mm 미만) 겨울 작물의 최종 수확에 유리했다.

■ 아르헨티나: 계절에 맞지 않은 건조가 중앙 아르헨티나의 한 핵심 농업 지역을 지배하는 중에 아르헨티나의 남부 및 서부 농업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심해졌다. 라 팜파에서 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중부와 북쪽으로 살타를 지나기까지 내린 총강우량은 25~75 mm였다. 대조적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에서 포모사까지 대체로 건조한 날씨 (총 강우량이 10 mm 미만)가 우세했는데 서쪽으로는 산타페와 코르도바의 동쪽 구역까지 건조한 날씨가 뻗어갔다. 며칠 동안 낮 최고 기온이 30도대에 도달하기는 했지만 기온을 섭씨 10도대로 떨어뜨린 한랭 전선이 지나가면서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부근 또는 그 이하로 떨어졌다. 건조와 간헐적인 온기가 생식기 및 종실비대기를 지나 발달하고 있는 옥수수, 대두 및 기타 여름 작물들에게 계속 스트레스를 가했다. 먼 북쪽은 더 따뜻한 상태가 우세했는데, 그곳은 낮 최고 기온이 보다 자주 30도대 중반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대두는 1월 7일 현재 각각 87% 및 94% 파종되었는데 두 작물 모두 작년 속도와 비슷했다. 면화는 89% 파종되었는데 작년 속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10 포인트나 뒤쳐져 있었다. 한편 밀은 97% 수확되어 작년 속도보다 3 포인트 앞섰다; 생산을 주도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



서는 수확이 94% 완결되어 작년 속도보다 10 포인트 앞섰다.

■ 브라질: 브라질 중부 및 남부의 주요 농업 지역에 산발적인 소나기들이 퍼지면서 대두와 기타 주요 여름철 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대체로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곳들에는 계속해서 평년 이하 (25 mm 미만)의 비가 내려서 잠재 수확량 감소를 막으려면 비가 필요했다. 특별히 언급하면 리오 그란데 도 술 대부분에서는 10 mm 미만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12월초 이래로 지배적인 건조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리오 그란데 도 술 정부에 따르면 1월 7일 현재 옥수수과 대두는 각각 94% 및 99% 파종되었다; 옥수수는 가장 발달하여 34%가 성숙했거나 이미 수확되었다. 반면 대두는 20%만이 개화했다. 파라나에서는 1월 4일 현재 첫 작물 옥수수와 대두의 75% 이상이 생식에 도달했다. 다른 곳에서는, 마토 그로소와 북동부 내륙 일부 (특히 바히아 서부와 피아우이)는 물론이고 상파울로에 건조 포켓들이 남아 있어서 사탕수수와 기타 여름 작물들을 위한 수분을 감소시키기도 했다. 여름의 온기가 지역 전체로 널리 퍼져서 마토 그로소와 북동부 내륙의 전통적으로 더 따뜻했던 곳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중간 및 높은 섭씨 30도대에 도달했다.